

# 다시 읽는 톨킨 그리고 에코토피아



흔히 대중문화니 상업문화니 귀족문화니 하고 무시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치부한 작품과 직접 대면하여 뜻하지 않은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언젠가 벨기에에서 루벤스 그림을 보고 그랬다. 그 전에는 귀족문화의 전형이라고 하면서 무시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루벤스 그림 앞에서 받을 뉘 수 없었고, 그 후 한국에 돌아와 어린 시절에 읽었던 《플란다스의 개》까지 다시 찾아 읽으면서 루벤스 감동에 흠뻑 젖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우연히 영화로 보았을 때도 그런 감동을 경험했고, 다시 원작을 읽으면서 더욱더 그러했다. 그 작품 자체, 작가가 무의식중에 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피로 쓴 것'이라고 말하는 점에 동감하면서, 따라서 이 작품을 《해리 포터》나 《다 빈치 코드》 등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작품 자체가 '생명의 책'이라고 느꼈다. 이 작품은 그 영화의 선전처럼 스펙터클한 전쟁영화가 아니라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영화라는 점에서 〈알렉산더〉나 〈트로이〉와 같은 영웅 예찬의 영화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니 본질적으로 반전만이 아니라 반권력이다. 작품의 상징인 화려한 황금반지는 생명을 파괴하는 권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작품 전체는 그 권력을 파괴하는 지난한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철저히 권력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한다. 반대로 권력을 추구하는 악인에는 사우론 같은 전쟁광, 영혼파괴자는 물론 뱀의 혀를 가진 정치가이자 자연을 파괴하는 사악한 과학자 사루만도 포함된다. 도덕적이지 않은 권력의 추구로 불행한 고통도 그렇다.

그러한 권력광신자들에게 저항하는 권력파괴의 주인공은 인간보다 열등한 호빗으로서 그들이 사는 곳은 자연과 평화, 자유와 자치, 평등과 자유, 그리고 권선징악의 에코토피아이다. 톨킨 자신이 자가용, 컴퓨터, TV, 세탁기를 가져본 적이 없고, 평생 집과 옥스퍼드대학을 자전거로 오갔던 생태주의 호빗이었다. 화이트가 쓴 《톨킨-판타지의 제왕》 평전은 자전거를 타는 톨킨의 하루 묘사로 시작한다. 톨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인 이 책은 톨킨의 삶과 작품 세계를 아는 데 거의 유일한 한글 문헌이다. 더욱 간단하게 톨킨을 알고자 하면 블레이크의 《30분에 읽는 J.R.R 톨킨》이 유용하지만, 사실 30분에는 불가능하고, 간추린 상식 이외의 지식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톨킨의 사상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갈구되면 다른 책들을 보아야 한다. 가령 베스웬 등 17명의 영미 교수들이 쓴 《철학으로 반지의 제왕 읽기》이다. 권력, 기술, 물신의 극한적 추구로 인한 인간의 불행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철학적 제안은 반드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반지의 제왕〉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톨킨의 환상서거》

윌리엄 모리스 지음 | 더글러스 A. 앤더슨 엮음 | 김정미 옮김 | 황금가지 | 718쪽 | 값 19,000원

《톨킨-판타지의 제왕》

마이클 화이트 지음 | 김승욱 옮김 | 작가정신 | 394쪽 | 값 16,000원

《철학으로 반지의 제왕 읽기》

그레고리 베스웬 외 16인 지음 | 최연순 옮김 | 이룸 | 384쪽 | 값 13,000원

《다시 읽는 반지의 제왕》

랄프 우드 지음 | 이승진 옮김 | 기독교문서선교회 | 284쪽 | 값 10,000원

《30분에 읽는 J.R.R 톨킨》

앤드류 블레이크 지음 | 강주현 옮김 | 중앙M&B | 146쪽 | 값 5,500원

● 이 글을 쓴 박홍규는

영남대학교 법과대학과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 리츠메이칸대학교 · 고베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노동법》(삼영사)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외 다수가 있다.

게 통찰의 기회를 주는 이 책은 대중문화로 철학하기의 모범이 된다. 플라톤, 니체를 비롯한 실존주의, 모더니즘, 에콜로지 등 여러 철학을 통한 <반지의 제왕> 재조명도 흥미롭고, 특히 불교와 도교적 요소를 밝힌 맥마흔의 글이 좋다. 톨킨 자신이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그런 측면에서도 읽혀진다는 것은 동양권의 톨킨 인기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건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불교와 도교 자체의 보편성, 특히 그 생태주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 자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톨킨에게 본질적 요소인 종교는 위의 두 책에서도 다루어지지만 우드의 《다시 읽는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다. 그러나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 책의 분석이 매우 적절하고 그 본지<sup>本誌</sup>가 앞의 두 책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 사회주의권에서 《반지의 제왕》이 금서였던 이유는 반드시 그 기독교적 성격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도리어 본질적으로 신화적 종교가 아닌 기독교에서는 《반지의 제왕》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은 기독교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의 책들이 나에게 무한한 감동의 상상력을 제공한 톨킨 에코토피아의 전체 조감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위 책 여기저기에 가끔씩 소개되는 톨킨과 윌리엄 모리스의 관계에 대한 갈증이 심했다. 그러다 올 6월 말, 환상문학전집 제19권으로 나온 모리스 등의 작품을 엮은 《톨킨의 환상서사》를 반갑게 읽었다. 그 부제처럼 이 책은 '톨킨과 《반지의 제왕》을 만든 스물 두 편의 이야기'이다. 사실 그 책에 소개된 22명의 작가 중에 내가 아는 것은 모리스뿐이었다. 그러나 그 흥미로운 '환상문학'이라는 장르가 나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고, 톨킨의 형성이 과연 그런 환상문학 뿐일까 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도리어 나에게 모리스의 《에코토피아 뉴스》가 《반지의 제왕》을 비롯한 톨킨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사실 그 환상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 톨킨의 작품은 그 어느 것보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톨킨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정신적 공황에 빠진 영국인을 하나로 결집시킬 정체성을 만들고자 새로운 신화를 창작하려고 했다는 계기로도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톨킨의 작품은 민족국가 건설신화의 재구성 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등장하고, 그 등장인물들도 전형적인 영웅도 아닌 보통사람들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국수주의나 인종차별주의 따위는 없고 어디까지나 다문화 세계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톨킨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작가들도 톨킨처럼 우리의 신화를 새로 창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런 이상적인 세계 질서가, 이상적인 개별 민족의 공동체사회 질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호빗이 사는 사회는 정치적 지배계급이 없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평화와 연대로 살아가는 자연 속의 아나키적인 에코토피아 사회이다. 상징적인 시장과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체국 외에 권력기구라는 것도 없다. 물론 톨킨의 문학세계에는 계급이 전혀 없지도 않고 백인우월주의가 읽혀지는 부분도 많으며 심지어 흡연에 대한 지나친 예찬도 보여(톨킨의 사진은 언제나 파이프를 문 모습이다) 흡연 반대론자에게는 못마땅할 수도 있다. 더욱이 여성 주인공이 드물거나 사랑에 대한 도덕주의적 묘사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그 역사관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심각한 비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톨킨의 에코토피아에 여전히 감동한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영국에서 20세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듯하다. 여러 종류의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지도 않고 영문학계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 책이 나온 지 반세기가 지났고 우리말로 번역된 지도 10여년이 넘었으나 영화해설 정도밖에 논의가 없어 유감이다. 그나마 위에서 본 몇 권의 번역서가 있어서 톨킨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주어 다행이랄까. 그 중 《톨킨 사전》이나 《반지의 제왕 지도》는 톨킨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직접 도움은 되지 않지만 위 다섯 권은 나름으로 유익하다.

21세기는 비극적인 9·11로 막을 올렸고 그 여파로 빚어진 제국주의 침략으로 벌써부터 피로 물들었다. 톨킨의 조국 영국에서도 참혹한 테러가 터졌다. 그래서 21세기 초에 제작된 영화 <반지의 제왕>은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의 여러 자유로운 민족의 공생과 평화를 노래한 점에서 위안이 되었다고 하면 너무나도 감상적인 것일까? 톨킨이 제1차 세계대전 후 반전주의 입장에서 《반지의 제왕》을 썼듯이 참혹한 테러를 이유로 또 다른 전쟁이 악순환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공생과 평화를 먼저 전제하는 세계질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마 지금 톨킨이 살아 있다면 영미의 침략전쟁에는 반드시 반대했으리라. **\*\*\***